

核 이닝 이터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11> 핵터

‘흔들림 없이 편안함’ KIA 타이거즈 핵터 노에시의 빛나는 200이닝이었다. 타이거즈 2년 차 외국인 투수 핵터는 지난해 이어 다시 한번 200이닝을 돌파하면서 ‘이닝이터’의 면모를 보였다. 핵터가 올 시즌 책임진 이닝은 201.2이닝. 10개 구단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투수 골든글러브를 들어 올린 팀 동료 양현종이 193.1이닝, SK의 켈리가 190이닝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2이닝에는 핵터의 노련함이 담겨있다. 핵터는 위기는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으로 KIA 선발진의 중심을

잡았다. 퀄리티스타트(6이닝 3실점 이하)로 마무리한 경기도 23회에 이르면서 양현종과 두산 니퍼트(20회)를 압도했다. 핵터가 1위에 이름을 올린 다른 기록도 있다. 바로 다승과 승률이다. 핵터는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넘은 투수다. 3월 31일 삼성과의 2017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핵터의 승리 행진이 전개됐다. 6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챙긴 그는 7월 11일 NC전까지 패 없이 14승을 거뒀다. 핵터는 지난해 마지막 등판까지 더해 15연승에 성공하면서 역대 외국인 선수 선발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했다. 그는 또 조

201.2이닝 소화 ‘리그 1위’...2년 연속 200이닝 QS 23회·승률 8할...15연승 ‘외국인 선발 최다’ 양현종과 타이거즈 창단 이래 첫 동반 20승 경사

계현과 선동열을 넘어 구단 최다 연승 신기록 주인공도 됐다. 핵터의 올 시즌 첫 패는 7월 23일 롯데전에서 기록됐다. 후반기 핵터의 승수 쌓기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그는 20승 투수가 됐다. “20승은 생각하지 않는다. 200이닝이 최우선 목표다”고 언급하던 그는 올 시즌 최종전이었던 10월 3일 kt전 선발로 나와 7이닝을 더하며 200이닝을 돌파했고, 이날 경기가 10-2 승리로 끝나면서 20승까지 동시에 달성했다. 핵터의 20승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한 KIA는 32년 만의 ‘동반 20승’이라는 곁경사를 맞았다. 그는 승리를 부르는 필승맨이기도 했다. 핵터는 0.800의 승률로 승률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KBO 트로피를 수확했다. 책임감으로 일군 2017시즌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피홈런이다. 지난해 7개의 홈런을 맞으며 가장 낮은 피홈런율을 기록했던 그는 올 시즌에는 21개의 홈런을 내줬다. 9월 3일 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는 3개의 피홈런과 함께 5.1이닝 9실점(7자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남기기도 했다.

■ 핵터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평균자책점	승	패	이닝	자책점	피안타	피홈런	볼넷	탈삼진
3~4월	5	1.22	5	0	37	5	33	3	4	25
5월	6	3.24	3	0	41.2	15	44	4	10	32
6월	4	4.85	4	0	26	14	35	3	4	26
7월	5	3.77	3	1	31	13	32	2	13	20
8월	4	4.88	2	2	24	13	28	3	5	17
9월이상	6	3.86	3	2	42	18	49	6	9	29
총합	30	3.48	20	5	201.2	78	221	21	45	149

핵터는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도 두산 오재일과 김재환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팀의 패배를 지켜보아야 했다. 피홈런율이 높아졌지만 핵터는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면서 피홈런의 여파는 최소화했다. 피홈런이 패배로 연결된 경기는 세 경기에 그쳤다. 핵터의 등판날에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눈길이 마운드에 쏠렸다. 하지만 내년에도 그는 KIA 타이거즈의 핵터다.

거침없는 연승행진으로 타이거즈 ‘V11’의 전면에 섰던 핵터는 우승 공신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올 시즌보다 30만 달러 오른 총액 200만 달러에 KIA와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우승을 함께 일궈낸 동료들과 내년에도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힌 핵터는 ‘변함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타이거즈에서의 세 번째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탁구 ‘오상은 아들’ 초등생 오준선 실업선수 꺾었다

전국선수권 3회전서 탈락

국내 최고 권위의 탁구 대회에서 연일 파란을 일으키며 큰 관심을 받았던 오준성(오정초 5년)의 ‘이번이 끝났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 오상은의 아들 오준성은 2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 남자 개인 단식 3회전에서 실업팀 소속 박정우(KGC인삼공사)에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다. 이로써 오준성은 4회전 진출에 실패하며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오준성은 1, 2세트를 3-11과 5-11로 힘없이 내줬다. 3세트에서는 한 때 8-5까지 또 한 번의 이변을 예고했다. 그러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리 6실점하며 8-11로 패해 성인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오준성은 지난 23일 이 대회 1회전에서 고교생 손석현(아산고 1년)을 3-2로 물리친 데 이어 2회전에서는 실업팀 소속 강지훈(한국수자원공사)을 세트스코어 3-1로 격파하고 3회전에 올랐다. 초·중·고, 대학, 일반 구분 없이 남녀 각각 일인자를 가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탁구 대회에서 초등생이 3회전에 오른 것은 오준성이 처음이었다. 초등학생이 실업선수를 꺾은 것 역시 처음이었다. 오준성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



탁구 국가대표 출신 오상은의 아들 준성 군이 25일 오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 남자 개인 단식 3회전에서 실업팀 소속 박정우(KGC인삼공사)를 상대로 백핸드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픽에 4번 출전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의 주역이었던 오상은의 아들이다. 초등학생 ‘탁구 신동’으로 TV 방송에도 소개되기도 한 오준성은 지난해에는 아빠 오상은과 한 팀을 이뤄 남자 복식에 출전하기도 했다. 대한탁구협회 강문수 부회장은 “초등

손흥민 9호골 사냥 나선다

EPL 20라운드 사우샘프턴과 올해 마지막 경기

한국 축구대표팀의 골잡이 손흥민(25·토트넘)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시즌 9호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사우샘프턴과 홈 경기에 출격한다. 이번 경기는 현지시각으로도 ‘박싱 데이(크리스마스 다음날)’에 펼쳐진다. 사우샘프턴전은 토트넘의 올해 마지막 경기다. 토트넘은 사우샘프턴전을 끝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고, 내달 3일 스완지시티전을 시작으로 2018년 시즌을 시작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8골을 뽑아냈다. 정규리그에서는 5골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달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합치면 4경기 연속골도 작성했다. 손흥민은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주춤했다. 지난 17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팀의 1-4 패배를 막지 못했다. 지난 24일 번리전에서는 토트

넘이 3-0으로 승리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쌓는 데 실패했다. 특히 번리와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놓쳐 아쉬움이 컸다. 손흥민은 이달 들어 리그에서 3골을 기록할 때만 해도 3번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기대를 높였으나, 지난 두 경기에서 부진하면서 쉽지 않게 됐다. 하지만 아쉬웠던 플레이를 뒤로하고 세 번째 시즌 9호골에 도전한다. 총 21골 기록했던 지난 시즌보다 득점 속도는 빠르다. 손흥민이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2017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진행하는 ‘2017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BBC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이 뽑는 ‘2017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선정을 위한 축구전문가 4명의 포메이션별 베스트 11 명단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4명의 전문가 가운데 ‘BBC 라디오 5 라이브’의 해설가이자 기자로 활동하는 이안 데니스가 뽑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오타니 11승·11홈런”

ML 통계시스템 2018 예측

‘일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3·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는 2017년 12월 에인절스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통계시스템이 예측한 오타니의 2018년 성적은 11승과 11홈런이다. 팬그래프닷컴은 최근 예측 프로그램 스티머로 오타니의 2018년 성적을 예상했다. ‘투타겸업’을 원하는 오타니의 상황을 고려해 투수와 타자 예상 성적을 모두 내놓았다. 팬그래프닷컴이 예상한 오타니의 2018년 투수 성적은 24경기 148이닝 11승 7패 평균자책점 3.48이다.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는 3.1로 평범한 선발 투수보다 팀에 3승 이상을 안길 것으로 전망했다. 타자 성적은 타율 0.257, 11홈런, 36타점으로 예측했다. 오타니가 일본프로야구 1군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2014년 성적과 비슷하다. 2013년 닛폰햄 파이터스에 입단해 13경기에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4.23, 타율 0.238 3홈런 20타점을 올린 오타니는 이듬해(2014년)부터 1군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2014년 성적은 24경기 155.1이닝 11승 4패 평균자책점 2.61, 타율 0.274 10홈런 31타점이다. /연합뉴스